

# “한국, 덴마크에서 돼지고기 1만5천톤 수입할 듯”

## — 영국에서 발행되는 Agra Europe지 보도

영국에서 발행되는 주간지인 Agra Europe지는 6월 첫째 주 발행지에서 「한국이 덴마크로부터 1만5천톤의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할 것이며, 계약은 곧 체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지는 「한국의 수입장벽을 무너뜨리려는 덴마크의 끊임 없는 노력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히고, 「10명의 실무진을 대동하고 한국을 방문한 후 귀국한 덴마크의 Laurits Toernaes 농무장관이 이번주에 「한국에 연간 1만5천톤의 돼지고기 수출이 기대되는데, 금액으로는 대략 434,600크로네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동지가 한국의 덴마크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에 있는 덴마크 무역사무소 고문인 Henric Steen Steesen씨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수입허용결정은 뜻밖이며, 이같은 결정은 1991년 이후에

기대되는 수입개방 때문만은 아니며, 한국정부의 물가상승 압박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덴마크 돈육수출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한국의 돼지고기 주문은 일본의 경우처럼 또 다른 판매시장으로서의 희망을 갖게 한다. 한국의 주문량은 현재 덴마크가 일본시장에 수출하는 양의 1/10에 해당된다.

수출업자들에 따르면, 덴마크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지난 70년대에 1만5천톤의 돈육수출로 출발했다. 그러나 덴마크가 한국이 수입잠재력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중 수출국으로 정하기 위한 유일한 국가가 아니다. EEC내에서 아일랜드는 덴마크의 주요 경쟁국이지만 미국, 캐나다, 대만, 호주 그리고 스웨덴이 때때로 한국의 돈육수입개방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덴마크의 공설도축장의 수출담당이사이며 덴마크 농무장관의 서울방문 일행이었던

Oivind Hoen씨는 한국정부가 이처럼 뜻밖의 결정을 한 것은 돼지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Hoen씨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돼지고기 시세는 작년보다 2배이상 올랐으며, 현재의 덴마크 시세로는 1,673크로네라고 밝혔다. Hoen씨는 이같은 한국의 돼지가격 상승은 일본에 대한 수출물량 증가때문이라고 말했다.

Hoen씨는 한국정부는 '89년도의 돼지가격 수준(1,346크로네)으로 낮출 때까지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덴마크의 농무장관인 Laurits Toernaes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와 축협, 농협, 농업진흥공사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gra Europe지에서)